

지역 매 아 리

변산반도 국립공원 30주년 기념
부안군민과 함께하는 힐링 음악회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 국립공원 사무소(소장 김효진)는 변산반도 국립공원 지정 30주년을 기념해 9월 8일 부안 예술회관 공연장에서 '부안군민과 함께하는 힐링 음악회'가 열린다.

국립공원 지정 30주년 기념 음악회는 그룹 아카시아의 아카펠라 공연, 최선악 브라스밴드의 태평소 합주, 국악가요, 플라멩고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안군 지역주민과 부안을 방문한 탐방객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무료로 진행된다.

유종섭 변산반도 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변산반도 국립공원 3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행사는 변산반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부안군민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으며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하반기 귀농귀촌

영농정착교육 교육생 모집

정읍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기센터)는 내달 3일부터 2018년 하반기 귀농귀촌 영농정착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대상은 영농을 목적으로 정읍시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또는 예정자이다. 교육기간은 내달 3일부터 18일까지 10회에 걸쳐 실시되며, 대상인원은 25명이다.

교육프로그램은 귀농귀촌 현황과 방향, 귀농창업 및 경영전략, 농장운영계획, 농기계안전사용 교육 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접수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이며, 접수기관은 농기센터 기술지원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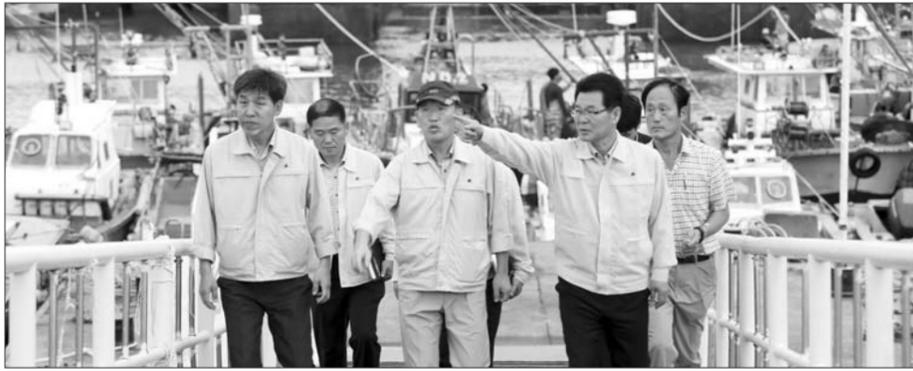
시는 "귀농·귀촌인이 영농정착 교육을 통해 농촌생활 적응과 영농기술 습득하여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5월에 상반기 귀농귀촌 영농정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명이 이 과정을 수료했다.

교육 수강신청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인력개발팀(☎539-6262)으로 문의하거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i.jeongeup.go.kr)로 접속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권익현 부안군수가 관내 해안가를 비롯한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현장행정을 펼치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 태풍 '솔릭' 복상 대비 현장 행정 펼쳐

침수·붕괴 대비태세 확립 긴급한 초기 대응 지시

제19호 태풍 '솔릭' 복상으로 인해 바닷길과 하늘 길이 통제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권익현 부안군수가 관내 해안가를 비롯한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현장행정을 펼쳤다.

23일 권익현 군수는 태풍에 대비해 새만금 기력항 등 항 포구와 하천변, 산사태 피해예방구간, 도로시설물 등 재해 취약지역을 돌며 침수·붕괴 등에 대한 대비태세 확립 등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했다. 특히 권익현군수는 농축산물 피해 최소화에 따른 농작물과 비닐하우스 등도 재점검에 나서며 해당 부서 및 읍면에서는 상황발생시 신속한 보고와 긴급 초기 대응을 지시하는 한편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를 관계자에 지시했다. 권익현 군수는 "해안가 지역 및 침수 취약지구 가구 등에 태풍 관련 기상상황을 신속히 문자로 전파하고 태풍 특보 상황에 따라 피해 발생시 보고 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5곳 선정

산림청이 주관하는 '2018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에서 정읍시는 5개 마을(북면 상하마을, 덕천 용두마을, 태인 청학마을, 산내 매대마을, 응동 영삼마을)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선정된 5개소 마을에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이 수여되었으며, 우수마을 이장(응동 영삼마을)에게는 산림청장의 표창 및 부상이 수여되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마을들은 마을회의, 캠페인 등을 통해 산불예방 홍보 및 산불감시, 농업 부산물 수거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하여 단 한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다.

시는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의 결과로써 얻은 영예를 축하하기 위해 22일과 23일에 걸쳐 선정된 마을을 돌며 마을회관에서 주민과 현관식을 가졌다.

산림청은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농산촌지역의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규제적 방식에서 벗어나, 이장 등 마을

회, 캠페인 등을 통해 산불예방 홍보 및 산불감시, 농업 부산물 수거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하여 단 한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다.

시는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의 결과로써 얻은 영예를 축하하기 위해 22일과 23일에 걸쳐 선정된 마을을 돌며 마을회관에서 주민과 현관식을 가졌다.

산림청은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농산촌지역의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규제적 방식에서 벗어나, 이장 등 마을

을대표자 중심의 자발적 주민참여를 이끌기 위해 2014년부터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정읍시는 252개 마을이 참여했으며, 대부분의 마을이 서약 준수사항을 모범적으로 실천해 98%의 높은 이행률을 기록했다.

유진섭 시장은 "우리 정읍시는 '내장산'이라는 수려한 자연산림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시민의 의식전환과 자발적인 참여로 이행 될 수 있다"며 관계자에게 시민 홍보를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서 청문실, 자살 암시 어르신 구한 직원 암묵지선정 격려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에서는 최근 자살을 암시하는 어르신을 신속 발견하여 가족에게 안전하게 연계한 모양지구대 노동선 경사를 암묵지로 선정 격려했다.

신속한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노경사는 동료경찰관은 물론 요구조자의 가족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노동선 경사는 "경찰관이러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인데 장려장까지 받게되니 사기 진작이 된다며 앞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청문감사실에서는 평소 성실 근면한 자세로 맡은바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지만 쉽게 눈에 띄지 않아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서 및 직원들을

관심 있게 살펴 칭찬과 격려를 통해 일하는 삶은 직장 문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아울러 갑질 근절 등 각 종 비위예방과 보다 나은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성재 서장은 "함께 일하는 동료의 칭찬과 격려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본인의 맡은바 업무에 성실히 임해하여 주민이 안전한 고창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군민과 함께 선거혁명 이룬다

유기상 고창군수 '군민희망펀드' 상환 완료

유기상 고창군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출마한 '고창군민희망펀드' 상환을 완료하며, "의향 고창군민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신선한 선거문화 개혁과 선거혁명을 이끌어 냈다"라고 최고 자랑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군민들로부터 자발적인 선거자금 모금의 성공으로 돈 없는 사람도 능력이 있으면,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연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돈, 조직, 세력 없는 사람도 민심을 바로 읽고 군민 속으로 들어갔을 때 군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위대한 교훈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고 전하며 "돈과 배경이 없이도 열심히 일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터전을 우리 청년세대들에게 마련되어야 고창군의 희망과 미래가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여러 분야에서 모금 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져 우리 고창군이 나눔과 봉사, 기부의 천국으로 군민들의 자긍심 높은 '자랑스런 고창' 만들기를 위한 '군민희망펀드'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군수는 지난 10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 받아 13일부터 순차적으로 고창군민희망펀드 출시 때 약속했던 임금과 약정이자를 덧붙여 반환을 완료했다.

유기상 군수가 깨끗한 돈 1만원으로 고창선거문화를 혁명하자는 구호로 시작한 펀드모금에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연령층, 다양한 직군에서 참여하였다.

모금된 총액은 1억4059만1원으로 이 모금액을 활용하여 법정선거비용 1억1700만원과 후보자 등록기탁금, 선거사무실 임대료 등 선거비용 외로 3500만원을 사용하여, 선거관련 비용 총액 1억520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이는 사실상 군민들이 모금한 펀드로 선거를 치렀다고 밝혔다.

유기상 군수가 깨끗한 돈 1만원으로 고창선거문화를 혁명하자는 구호로 시작한 펀드모금에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연령층, 다양한 직군에서 참여하였다.

모금된 총액은 1억4059만1원으로 이 모금액을 활용하여 법정선거비용 1억1700만원과 후보자 등록기탁금, 선거사무실 임대료 등 선거비용 외로 3500만원을 사용하여, 선거관련 비용 총액 1억520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이는 사실상 군민들이 모금한 펀드로 선거를 치렀다고 밝혔다.

모금된 총액은 1억4059만1원으로 이 모금액을 활용하여 법정선거비용 1억1700만원과 후보자 등록기탁금, 선거사무실 임대료 등 선거비용 외로 3500만원을 사용하여, 선거관련 비용 총액 1억520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이는 사실상 군민들이 모금한 펀드로 선거를 치렀다고 밝혔다.

정읍시, 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27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서

정읍시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2018년 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총 모집 규모는 80명이다.

시는 "취업보호계층의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4단계 공공근로사업은 10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참여자격은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정읍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사람이다. 단, 실업급여수급자, 1세대 2명이상,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연속 3단계 참여자 등은 참여가 배제된다.

임금은 시급 7,500원, 1일 부대경비 5천 원이다. 연량별 근로시간은 세 구간으로 34세 이하의 주40시간(청년대상 적합사업에 한함), 35세미만은 주30시간, 35세 이상은 주15시간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실정과 사업참여자에게 적합한 사업을 발굴·선정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꾀하고, 공공근로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희망자는 구직등록확인증과 건강보험증, 신분증을 갖춰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태 홍



서바이벌 ATV / 버기카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485-2)

대표 약력

일본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국제대회 디슈 참가 및 우승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출전
국가대표 코치 역임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1/NSL2) 취득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바버티 자격 취득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연)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